지역 소식통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크리스마스트리 이벤트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센터 홍보와 터미널 인근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SNS 이벤트를,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5년 새해맞이 소원나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트리 SNS 이벤트는 센터 1층에 설치된 트리와 함께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를 태그하면 되며 조회수 등 노출도를 계산해 상위 10개의 게시물에 상품을 증정한다.

2025년 새해맞이 소원나무 행사는 여행자 센터에서 소원을 작성하고 가랜드에 걸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2층 전시실에 '솔비탐소리문학회 디카시 전시'가 진행되고 오는 21일 토요일에는 캐롤 라이브 및 지역 소상공인 상품 홍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팝업 존이 열린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5 주민숙원 사업 합동 설계단 가동

정읍시가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계단은 내년 지역개발사업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목표로 내년 2월 14일까지 운영된다.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직 공무원 21명이 4개 조로 나뉘어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총 1400여 건,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를 맡는다.

시는 설계단 운영을 통해 재정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조기에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의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 내년 2월 14일까지 설계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계엄 선포에 항의

의원들 긴급 회동… 상경 투쟁 나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4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하였다. 지난 3일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한 후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통해 밤새 상황을 지켜보고, 오전 8시경 국회로 향했다.

부안군의회는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대통령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에게 군사 독재시절을 떠올리게 한 현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력 투쟁하기 위해 나섰다.

박병래 의장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 선포에 대해 군민을 위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나서야할 때"라고 강력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한편, 회기중인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추후 상황을 보고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

정읍시, 일 · 가정 양립의 모범 사례로 인정

정읍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에 성공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번 재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한 서류심사와 재직자 온라인 설문 등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2008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첫 인증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장려, 유연근무제 도입,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꾸준히 조성해왔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이번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인증마크 사용 권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학수 시장은 "가족친화 인증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면밀히 개선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굴뚝 없는 스포츠산업 육성 '박차'

육상경기장 준공 · 2종 공인 추진

정읍시가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육상경기장이 완공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로써 정읍은 전국 규모의 육상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

시는 지난 5월 기존 종합경기장 자리에 공사를 착수해 11월 말 육상 트랙 조성을 완료했다. 주요 시설은 대한육상연맹 2종 공인 규격을 준수한 400m 8레인 육상트랙과 보조경기장, 창던지기, 멀리뛰기, 장대높이뛰기 등 다양한 경기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설비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대한육상연맹과 시 육상연맹, 체육진흥사업소 관계자가 참여해 시설 검수를 진행한 결과 합격 판정과 사용 승인을 최종 획득했다.

이달 4일부터는 주경기장이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된다. 코로나19와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으로 오랜 기간 사용이 제한됐던 시민들의 체육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시설의 장기적 유지와 안전을 위해 차량, 자전거, 전동기구, 인라인스케이트, 운동화 미착용자, 반려동물의 출입 금지 및 음식물 섭취 금지를 당부했다.

시는 이에 더해 내년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진 판독실, 용기구 창고, 화장실 등 추가 시설을 갖추고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국 단위의 육상대회는 물론 도민체전, 국제 친선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시범사업 신청 · 접수

부안군은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저감 축산활동을 이행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반추동물(소, 젖소)의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감축 및 소·돼지·닭(산란계)의 가축분뇨에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을 위해 저메탄·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25년에는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 추가된다.

가축분뇨의 호기성 처리를 위해 기계교반 및 강제송풍을 시행했을 경우 활동률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계교반의 경우 스크류, 강제송풍의 경우 에어블로워 등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급단가는 사료 급여의 경우 저메탄사료는 한우·육우 2만 5000원(마리당)과 젖소 5만원(마리당)이며 질소저감사료는 한우·육우 1만원(마리당)과 돼지 5000원(마리당), 산란계 200원(마리당)이다.

분뇨처리 개선에서는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은 1300원(톤), 강제송풍은 500원(톤)이며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00원(톤), 강제송풍 500원(톤)이다.

신청방법은 부안군청 축산과(농장소재지 사업담당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업서류 간소화 · 계절근로자 정책… 우수정책 '대상'

고창군의 특별한 농업정책인 '농업서류간소화'와 '계절근로자정책'이 전북 우수정책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 '고창 농업인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전북도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될 예정이다.

올부터 본격 시행된 고창군의 '농업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서비스'는 관례적으로 제출했던 보조사업 포기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을 생략했다.

행정전산망 확인 가능한 서류는 사업 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자체 확인과 첨부토록 하여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군민 1400명을 대상으로 '농업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군민 93%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바쁜 영농철 복잡하고 방대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군은 올해 1800여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유치해 농촌일손부족해소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전국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센터 마련 등을 통해 농촌인력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7년 연속 '최우수기관'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2024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전국 147개 시·군 445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 및 정부정책사업 참여, 전문인력 질적평가 등 5개 분야에서 높은 득점을 획득함으로써 7년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게됐다.

이에따라 고창군은 내년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총 2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현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총 98종 1095대를 보유하고 있다. 12월 현재 지역농업인들에게 농기계 1만250대를 임대했고, 1746대를 무료로 배달해 주기도 했다.

올해는 영농철 주말근무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임대실적은 18%늘었다. 특히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를 연말까지 50% 인하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봉사를 펼치고 있다. 농기계지원팀 전문요원 8명이 참여해 농기계 수리는 물론, 자가 정비 방법과 올바른 농기계 사용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